

Sermon 25 October 2013

<욥기 42:1-6, 10-16 & 마가 10:46-52>

우리는 한국인이 이해하는 "한(恨)"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 가슴에 깊이 새겨진 가련한 음악인 아리랑을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고통은 태초부터 인간이 경험해온 것입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고난과 고통으로 시달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4 주 동안 들은 욥의 이야기에서 "왜? 왜 착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고통 당하는 것일까요?"에 대한 고뇌가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맴도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저항하고, 보호막을 쳐서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믿는 삶에 위반되는 것처럼 느껴 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옘의 이야기가 풍부한 축복으로 기쁘게 마무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었던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모순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하심,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 거센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인간을 괴롭히는 악령을 내쫓으심을 붙들고 싶어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것이 내가 믿는 것 "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도 이러한 이유들의 증인으로 예수님께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길가에 앉아있었던 소경 바디매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짐작컨데 그는 그저 동전이나 빵 조각 몇 개를 얻는 것만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소리로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다윗의 자손" 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다윗의 혈통 속에 예수님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바디매오는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바디매오는 그의 겹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겹옷을 버림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는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과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디매오의 대답은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바디매오가 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였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매오는
치유 받은 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바디매오는 서둘러 집으로 가서 자기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지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았고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바디매오는 그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고통으로
그를 인도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바디매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바디매오가 평생 사도로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알려졌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디매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 장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그 자리에서 치유하십니다.

이 사건은 두 번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진정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보지 못했고 이해 못했던가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음으로 서 우리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 함으로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이해한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때 우리의 고통을 강조하고
우리자신이 겪고 있는 부당함에 사로잡혀 외칩니다.

아름다운 한국 음악 아리랑은 고통과 부당함에 관한 곡입니다.

아리랑은 개인의 울분을 공동체의 심장소리로 승화시켜 울분의
초점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은 아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곡을 쓴 존
뉴턴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 입니다.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뼈아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가 구출된 후에 그는 인생이 180 도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수 백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그들의 고향에서부터
강제로 데려와 열악한 조건들에서 노예로서 고통의 삶을 살게 하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노예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존
뉴턴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그는 사제로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또 다시 180 도 전환됩니다. 그는 그의 노예시장에서 자신이 한 역할을 인정하고서 노예 폐지론자가 됩니다.

그 또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장님이 되었지만 그제서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충격적인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매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바디매오는 보는 것을 선택했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고통의 외로움, 가시관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자신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에 대한 "왜"? 라는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고전 분투 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도 않으며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분과 함께 계속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의미를 찾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그것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관한 것 입니다.